현대重, 친환경 미래기술에 7600억 선제 투자

친환경·스마트조선소·수소 등 IPO 앞두고 3대 핵심사업 집중
친환경 선박의 퍼스트무버 주력

7월말 조선해양 86억달러 수주
1.6조 메탄올 초대형 컨선 8척 등
2014년 이후 수주량 역대 최고

현대중공업이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친환경·디지털 선박과 스마트 조선소 구축, 수소 인프라 등 3대 핵심 사업에 집중 투자를 진행한다. 1조8000억원의 조달 자금 중 7600억원을 미래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데 사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현대중공업은 2일 온라인 기업설명회를 열고 '친환경 선박의 퍼스트무버(First Mover), 선제적 투자 통한 초격차 달성'이라는 비전을 발표했다. 현대중공업은 비전 달성을 위해 친환경 미래 선박 기술 개발과 스마트 조선소 구축, 해상 수소인프라 투자 등을 미래 핵심 3대 사업으로 선정했다.

현대중공업은 최대 1조800억원 규모인 IPO 조달자금 중 약 7600억원을 미래 비전 달성을 위한 초격차 기술 확보에 투자한다. 세부적으로는 친환경 선박과 디지털 선박 기술 개발에 3100억원, 스마트 조선소 구축에 3200억원, 수소 인프라 분야에 13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친환경 선박 분야에서는 수소 및 암모니아 선박, 전기추진 솔루션, 가스선 화물창 개발 등에 집중해 고부가가치 선종의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한편, 디지털트윈 등 디지털선박 기술의 고도화를 통해 급성장이 예상되는 자율운항 시장 진출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030년까지 생산에 IT기술을 접목한 스마트조선소를 구축해 효율적인 생산체계와 안전한 야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또한 해상 수소 인프라 시장 선점을 위해 업계 최고 조선해양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상 신재생 발전·그린수소 생산, 수소 운송 인프라 분야에 투자를 확대한다.

현대중공업은 비전 달성을 위한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갖췄다는 점도 강조했다.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신규 수주 증가로 선수금 유입이 늘어나며 순차입금 비율은 34.9%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국내 주요 조선사 평균인 107.9%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현대중공업은 우량한 재무건전성을 바탕으로 수주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7월 말까지 조선해양부문에서 59척, 86억 달러를 수주하며 연간 목표액(72억 달러)을 20% 초과 달성했다. 이는 2014년 이후 같은 기간 수주량 중 역대 최고치다. 또 지난달 24일에는 머스크사로부터 세계 최초로 1조6500억원 규모의 메탄올 추진 초대형 컨테이너선 8척을 수주했다.

글로벌 조선·해운 리서치 기관인 영국 MSI(Maritime Strategies International)에 따르면, 글로벌 조선 시장은 2009년 금융위기 이후 불황에서 13년 만에 반등해 2025년까지 글로벌 신조 시장 수요가 연 평균 약 16% 성장하는 등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판매자 시장(Seller's Market)'으로 변화할 전망이다.

한영석 현대중공업 사장은 "현대중공업은 세계 1위 조선사업과 엔진사업을 바탕으로 글로벌 조선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선도할 것"이라며 "친환경 미래 기술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지난 50년에 이어 다가올 50년에서도 조선업계 1위의 위상을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중공업은 이번 IPO를 통해 전체 지분의 20% 규모인 1800만주를 신주 발행할 계획이다. 현대중공업은 현재 그룹 내 중간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9월 2일~3일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한 후 6일 최종 공모가를 확정할 예정이며, 7일과 8일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청약을 진행해 9월 16일 코스피 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다.

한편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연결 기준 8조3120억원의 매출과 325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1면 '2035년 탄소중립…'서 계속

새로운 전동화 라인업 고객 감각과 상호작용

제네시스는 GV60를 시작으로 향후 새롭게 선보이게 될 전기차를 통해 고객과 더욱 진정성 있게 상호 교감하는 럭셔리 브랜드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루크 동커볼케 제네시스 부사장은 "새로운 전동화 라인업은 고객과의 교감을 강화하기 위한 완벽한 플랫폼으로 고객의 감각과 상호작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새로운 아키텍처는 대담한 기술과 놀라운 디자인을 통합하는 것은 물론이고 고객들에게 따뜻한 정성과 정교한 배려가 깃든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제네시스는 디자인 영역의 확장을 표현한 브랜드 필름 '디자인드 포 유어 마인드'를 함께 공개하며, 고객이 제네시스와의 교감을 통해 스스로의 내면에 집중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게 되는 과정을 담아냈다. /양성운 기자

LG전자, 230억 투입… 미래 신사업 발굴 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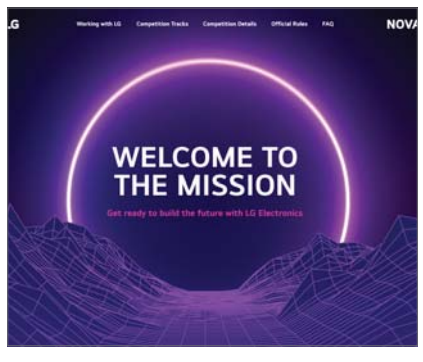
북미이노베이션센터 공모전
스타트업 대상 아이디어 모집

LG전자가 미래 신사업 발굴을 위해 혁신 기술과 아이디어 발굴에 집중하고 있다.

LG전자 북미이노베이션센터는 2일 글로벌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하는 아이디어 공모전 '미래를 위한 과제'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공모전은 이달 1일부터 다음달 25일(미국시간 기준)까지 진행된다. LG전자는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환경 친화적이면서 더 건강하고 스마트한 삶을 누리는데 도움이 될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LG전자는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아이디어 공모전을 향후 매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공모전에서 단계별 심사를 거쳐 아이디어가 채택된 팀은 북미이노베이션센터와 함께 아이디어 구체화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LG전자는 내년 6월 말까지 최대 10개 팀을 최종 선정한다.

LG전자는 최종 선정된 팀들과 함께 사업을 수행을 위해 최대 2000만 달러(한화 약 23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선정된 팀은 LG전자를 비롯해 LG전자 파트너사와도 교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멘토링·파일럿 프로그램 등에 참여해 사업을 성장시키는 기회를 얻을 수도 있다. LG전자의 글로벌 인프라와 공급망 등도 활용 가능하다.

다만 LG전자는 현재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최종 선정된 팀의 이 같은 작업 진행과 관련해서 대면이 될지 비대면이 될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고 전했다.

LG전자는 이번 공모전을 5가지 주제에 맞춰 진행한다. ▲언제 어디서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커넥티드 헬스(Connected Health) ▲e-모빌리티 인프라 확장 및 전동화 활성화 방안(Energizing Mobility) ▲LG 씽큐(LG ThinQ) 플랫폼 기반의 커넥티드 홈 관련 스마트 라이프스타일(Smart Lifestyles) ▲메타버스(The Metaverse) ▲사람, 사회, 지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LG의 혁신 철학에 부합하는 새로운 혁신(Innovation for Impact) 등이다.

앞서 LG전자는 전사 차원의 미래준비를 위해 지난해 말 최고전략책임자(CSO) 부문 산하에 북미이노베이션센터를 새롭게 설립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북미이노베이션센터는 미국 국립표준기술원 부국장을 역임한 이석우 전무가 센터장을 맡고 있다. 이 전무는 IoT 분야 사업개발 전문가로 손꼽히며 백악관에서 IoT 부문 대통령 혁신연구위원을 지낸 바 있다.

/한창대 기자 cd1@

›› 1면 'LG전자 렌탈사업…'서 계속

계정수 렌탈 업계 '2위' 신용장벽 낮춰 틈새공략

LG전자 관계자는 "케어솔루션 매니저가 소비자에게 직접 찾아가 정기적으로 핵심부품을 교체하고 보이지 않는 곳의 위생까지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제품이 항상 최상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점검하는 점이 다른 업체와 차별화 되는 점이다"라고 설명했다.

◆가입 장벽 낮추고, 제품 늘리고

최근 LG전자는 가전 렌탈 서비스 케어솔루션에 비금융정보 기반 신용평가모형인 '텔코스코어'를 연내 도입한다고 밝혔다. 텔코스코어는 통신비 납부 실적·통신활동 기간·휴대폰 소액결제 등을 바탕으로 신용을 평가하는 모형이다.

렌탈 서비스는 신용평가 점수가 낮은 경우 가입이 어렵다. 매월 이용료를 납부해야하기 때문이다.

LG전자가 이런 현재의 가입 장벽을 낮춘다는 것. 텔코스코어가 도입되면 대학생·사회초년생·주부·노년층 등 금융 거래실적이 적어 신용평가 점수가 낮은 씬파일러 소비자도 케어솔루션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LG전자의 렌탈 사업 계정수도 꾸준하게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말 기준 LG전자 렌탈 사업 계정수는 약 270만 개였다. LG전자는 계정수 기준 국내 렌탈 업계 2위를 차지하고 있다.

LG전자는 현재 ▲정수기 ▲건조기 ▲공기청정기 ▲스타일러 ▲식기세척기 ▲전기레인지 ▲얼음정수기냉장고 ▲안마의자 ▲수제맥주제조기 등 생활가전 9종에 대한 렌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LG전자는 인테리어 가전 라인인 오브제컬렉션 제품도 지난해 출시와 함께 렌탈로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혔다.

/한창대 기자 cd1@

삼성전자, '갤럭시A52s 5G' 오늘 출시

IP67 등급 방수방진 등 지원

삼성전자가 중저가 갤럭시 라인업을 확장한다.

삼성전자는 오는 3일 갤럭시 A52s 5G를 국내 출시한다고 2일 밝혔다.

자급제와 이동통신 3사 모델로 출시되며 가격은 59만9500원이다. 색상은 어썸 블랙·어썸 화이트·어썸 바이올렛 3가지다.

삼성전자는 신제품이 중저가 모델이지만 최상의 모바일 경험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신제품은 IP67 등급 방수방진을 지원하고 초당 120개의 화면을 보여주는 120Hz 주사율의 슈퍼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적용했다. 6.5형 대화면 인피니티-O 디스플레이로 웹 페이지를 스크롤 하거나 게임이나 동영상을 감상할 때 더욱 부드럽게 화면을 감상할 수 있다.

후면에는 6400만 화소 기본 카메라를 비롯해 1200만 화소 초광각 카메라·500만 화소 심도 카메라·500만 화소 접사 카메라 등 쿼드 카메라를 탑재했다. 전면 카메라도 3200만 화소를 탑재해 사용자들은 다양한 카메라 경험을 즐길 수 있다.

이 밖에도 ▲광학식 손떨림 방지 기능 ▲4500mAh 대용량 배터리 ▲25W 초고속 충전 등을 지원한다.

삼성전자는 오는 3일 삼성 갤럭시 A52s 5G 모델을 출시한다고 2일 밝혔다. /삼성전자

/한창대 기자